

〈하한가 따라잡기〉

개미들 ‘하타’ 한탕주의 베팅에 “상폐·추가하락 위험, 신중해야”

금투업계, 급락주식 매수 주의보
서학개미, SVB 파산사태 발생이후
관련주 1247억 매수 후 ‘상장폐지’
동학개미, SG發 연루종목 사들여
매수세에 반짝 반등 후 큰폭 하락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주가급락종목을 저가매수의 기회로 보고 공격적인 베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들인 종목들이 상장폐지 또는 추가 급락하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한탕주의식의 투자 행태는 위험하다며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의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급락한 주식을 매수하는 이른바 ‘하타(하한가 따라잡기)’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서학개미들은 실리컨벨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주식을 9295만4368달러(약 124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들은 이미 주가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본 상황에서 퍼

스트리퍼블릭은행이 지난 1일 상장폐지됨에 따라 한 푼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는 최근 상장 폐지를 예고한 미국의 가정용품 판매 업체 베드베스앤드비온드(BBBY) 주식도 4월 한 달간 1266만달러(약 169억원)어치 사들였다. BBBY는 대표적인 밌 주식으로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관련 없이 온라인에서의 입소문만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다. BBBY가 지난달 24일 파산 보호를 신청한다는 소식에 주가는 4월 마지막 주 5거래일간 46% 이상 폭락했고, 지난 2일 0.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또한 동학개미들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SG증권발 주가조작에 연루된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삼천리(786억원), 하림지주(467억원), 서울가스(358억원), 대성홀딩스(328억원), 선광(294억원), 세방(291억원) 등을 순매수했다. 이들 종목은 지난 24일 SG증권발 매물 출회로 급락세를 이어가다가 지난 달 28일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

입어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날 선광(-12.73%)과 서울가스(-12.12%), 대성홀딩스(-11.45%), 삼천리(-7.65%), 다우데이타(-5.24%), 하림지주(-3.09%), 세방(-0.22%) 등 모두 하락으로 마감하며 반등에 성공한 지 하루 만에 주가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이날도 대성홀딩스(-7.63%), 선광(-7.36%), 세방(-5.49%), 서울가스(-4.09%), 다우데이타(-1.15%), 하림지주(-0.55%) 등은 모두 하락 마감했다. 다만 삼천리는 0.71%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 특히 주가조작 관련 의혹이 진행 중인 이들 종목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 저가매수에 나서는 것은 손실을 키울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투기성 매수세가 몰린 종목군의 급락과정에서 저점을 예단한 투자자들이 무턱대고 투자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이들 종목의 변동성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기 반등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2023 Milken Institute Global Conference’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미국판 다보스포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나서

‘밀켄연구소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KRX, 韓 자본시장 홍보활동 전개
IRC폐지 등 접근성 제고방안 설명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달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미국 LA 베버리 힐즈에서 개최된 ‘2023 Milken Institute Global Conference(컨퍼런스)’에 참가해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자본시장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해당 컨퍼런스는 비영리 독립 경제 연구소인 밀켄 연구소(Milken Institute)가 1998년부터 개최하는 연례 국제행사이다. 포춘 선정 500대 기업 경영진을 포함한 경제·정치·사회·문화 분야 저명인사 수천 명이 참석하는 ‘미국판 다보스포럼’으로도 불린다. 올해 최초로 한국 자본시장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 세션이 개설됐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포함한 세션 참가자들은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시장 접근성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특히 손 이사장은 본 세션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IRC) 폐지, 영문 공시 확대 도입, 외환시장구조 개선 등 거래소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외국인 투자자 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 의무 폐지는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ESG 공시기준 및 평가 관련 이슈,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우량기업 상장유치 등 한국 자본시장 관련 주요 이슈와 현안을 공유했다. 손 이사장은 “앞으로도 해외 로드쇼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 대상 한국 자본시장 홍보 및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코스피200 주가수익비율 11.3%… 신흥국보다 낮아

KRX, 유가증권·해외시장 투자지표
선진국 주가수익비율 평균 17.9%
중국·인도 등 신흥국 평균 12.5%

코스피200의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당수익률은 선진국과 유사했지만 이 역시 신흥국보다는 낮았다. 3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유가증권 시장과 해외 주요시장 투자지표 비교’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코스피 상장기업의 순이익과 현재의 주가 수준을 비교한 코스피 PER은 전년 11.1배에서 13.3배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2022년말 코스피 상장기업의 순자산과 현재의 주가수준을 비교한 코스피 PBR은 전년의 1.1배에서 1.0배로 하락했다. 2월 기준 코스피200 지수의 PER은 11.3배다. 거래소 분석에 따르면 선진

〈해외시장 투자지표 비교 (코스피200 기준)〉 /자료=한국거래소

구분	PER (배)	PBR (배)	배당수익률 (%)	구분	PER (배)	PBR (배)	배당수익률 (%)
한국	11.3	0.9	2.2	중국	13.7	1.4	2.6
미국	20.4	4.2	1.6	대만	12.6	2.2	4.4
일본	16.3	1.4	2.4	인도	23.6	3.2	1.4
영국	11.0	1.7	4.3	브라질	5.5	1.5	7.6
프랑스	13.8	2.0	2.8	태국	22.5	1.9	2.9
전체	17.9	2.9	2.2	전체	12.5	1.6	3.2

국(미국 등 23개국) 평균은 17.9배로 한국은 기준보다 아래를 웃돌았다. 특히 미국은 20.4배로 2배 수준의 격차를 보였으며, 이외에도 일본은 16.3배, 프랑스 13.8배 등 한국보다 높았다. 다만 영국은 11.0배로 한국보다 소폭 낮았다. 신흥국과 비교해도 중국(13.7), 대만(12.6), 인도(23.6), 태국(22.5) 등 한국이 낮은 수준이다. 코스피 PBR은 0.9배로 평가됐는데,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가치(정산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의 저평가를 의미한다. 미국은 4.2

배로 한국의 약 4배 수준이다. 선진국 평균이 2.9배, 신흥국 평균이 1.6배인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그보다 낮은 수준에 그쳤다. 한국은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했으며, 해외 주요시장은 MSCI 국가지수 기준으로 집계했다. 거래소는 “PER 상승은 전년의 급격한 주가 하락세 이후 저가 매수세 유입과 시가총액 감소 대비 상대적으로 큰 순이익 감소에 기인했다”며 “PBR 하락 이유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자본총계가 증가했음에도 주가는 약세를 시현한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대우건설, 서울시, 도봉구청, 한국해비타트 관계자들이 안심동행주택 9호 주택에서 완공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

대우건설, 쌍문동 안심동행주택 9호 ‘입주’

서울시-한국해비타트와 합동
창호·조명교체, 방수공사 등 실시

대우건설은 서울특별시, 한국해비타트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민관협력사업(이하 안심동행주택) 9호의 완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안심동행주택 9호로 선정된 가구는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주택으로 허리디스크와 무릎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령의 모친과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가정은 생활 및 거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의 사용승인연도는 지난 1993년으로 바닥이 매우 습하고 환풍이 되지

않는 노후화됐다. 단열 효과가 낮고 창문 틈새로 물이 새는 등 실내 사용도 어려운 구조였다. 해당 세대에는 ▲주택의 창호 및 조명 교체 ▲방범창, 침수경보기, 화재감지기 설치 ▲환풍기, 타일, 양변기 교체 및 추가 방수 공사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를 위해 바닥 평탄화와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서울시와 대우건설, 그리고 해비타트가 시행하는 새로운 주거복지 사업 모델”이라면서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이와 같은 사업을 올해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금감원, CFD 관련 키움증권 조사 나서

SG發 추가폭락 원인으로 거론
금융감독원이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3일부터 키움증권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

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통해 금감원의 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감사 방침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일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CFD 감사에 착수하며, 나머지 CFD 판매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CFD와 관련한 개인 전문투자자 여

건 및 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와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 내부 임직원의 연루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등기이사도 등재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연루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 회장은 주가 폭락 이틀 전 605억원 규모 주식을 처분해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CFD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원관희 기자